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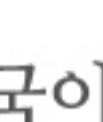
2014『내가 한국바로알리기의 주인공』

에세이 & UCC 공모

구 분	소 재	세 부 내용
에세이 부문	외국에서 보는 한국 이미지	- 외국자료(외국 교과서 포함)에 나타난 한국이미지 - 외국에서의 한국이미지 제고 방안
	한국이해자료 활용	- 한국이해자료의 활용 후기 - 한국이해자료 개발에 대한 제안
UCC 부문	한국바로알리기	- 해외에 한국을 바로 알릴 수 있는 한국의 역사 · 문화관련 창작 동영상 제작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한국학중앙연구원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한국바로알리기사업실
The Understanding Korea Project

한국이해자료 개발에 대한 제안

1. 외국교과서에 디지털콘텐츠인 QR 코드 첨부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시장이 강세이다. GSMA인텔리전스가 실시한 최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시장은 향후 6년간 세계적으로 약 60억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즉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더욱 확산됨에 따라 누구나 모바일이 익숙해지고 사용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지금에서부터 그러한 양상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밝고 희망찬 이미지를 전하는 방안으로 활자나 종이 간행물들로는 한계가 있다. 사람들은 모바일 사용에 익숙해지면서 빠르고 즉각적이고 간단한 정보들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교과서에 한국에 대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담은 QR 코드 삽입을 권고한다. 실제 한국에서도 이미 많은 수업에 QR코드를 활용하는 등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발 맞추어 나가고 있다.

외국교과서의 한국을 설명하는 지문에 우리가 인식시키고 싶은 한국이미지에 대한 짧은 영상이나 왜곡된 역사에 대한 올바른 수정영상 등을 삽입하면 그들에게 흥미롭고 재미있고 즉각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들이 수업 외의 시간을 투자해 한국을 찾아보게 하는 것이 아닌 수업의 흐름 중간에서 왜곡된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교과서에 QR코드 삽입은 결코 미래시대의 일이 아니다. 현재 많은 곳에서 실시하고 있고 많은 이들에게 익숙하다. 외국교과서에서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이야기보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나 사용되는 지문은 비교 볼 만큼 적다. 따라서 교과서 전체를 통째로 수정할 수 없다면 QR코드를 통한 정보전달은 효율성 있고 또한 모바일 시대에 발 담그고 있는 정보수용자들에게 흥미로운 맞춤형 전달이 될 것이다.

2. IELTS 혹은 TOEFL 시험 등 세계적인 영어시험 'content'에 투자

호주 유학 시절 IELTS 시험을 준비하였을 때이다. 그 기간 동안 외국에서 바라본 한국에 대해 크게 아쉬웠던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전세계적인 영어시험은 IELTS 시험 안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이다.

먼저 IELTS란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시험 중 하나로, 작년 2013년 6월 전세계 영어시험 중 최다 응시자 200만 명을 기록했다. 또한, 18년간 꾸준한 증가세이다. 아이엘츠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로 유학 및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의사소통 능력 평가 및 직업교육에 활용되고 있는 세계적인 영어시험으로 비 영어권자를 대상으로 135개국, 8,000개의 기관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듣기나 독해에서 나타나는 컨텐츠는 전 세계 135개국의 응시자들에게 전달되며 영향을 미친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아시아의 교육 문화나 생활 문화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단 한번도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이다.

가만히 살펴보면 아시아 교육에 대한 특징이나 생활 등의 예시로는 항상 일본이나 중국이 등장했으며 아시아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나라 중 우리나라는 첫 번째가 아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노출도의 문제이다. 실제 호주 원어민 교사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는 일본이 아이엘츠 시험 내용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현명한 방법이 아닐 수가 없다.

시험을 치는 응시자들은 그 어느 때 보다 시험 중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시험 중 일본에 대해 들려오는 내용이나 지문을 읽을 때 집중을 최대화 시키고 그로 인해 장기적으로 기억되는 이미지를 간직할 수 밖에 없다. 일본이 단순히 선진국이고 강대국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시아의 전통적 문화, 아시아의 생활에서 일본이 많이 떠올려지는 것이다.

실제 수십 명의 외국인 학생들과 같은 반에서 시험을 준비하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을 때 한국에 대해 깊이 아는 학생들은 없었다.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 모습을 지니고 있음에도 당시의 단발적인 이슈나 김치에 대해 언급을 할 뿐 일본에 대해서 만큼 우리문화나 왜곡된 역사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은 없었다. 나는 잠재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들을 공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바꾸려면 그들이 스스로 찾아야만 알게 되는 발행물들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며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TOEFL이나 IELTS 등 외국인들이 접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

주제2_장려상

글 | 최문경

건국대학교, 학생

(활동국가: 한국)